

세계와 적극 소통... 캠퍼스, '작은 지구촌'이 되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는 세계 150여 개 국가의 국제나사렛교회 국제본부의 교육국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53개 대학이 설립돼 있고 미국에만 8개 대학교가 있다. 이러한 풍부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국인 교원과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캠퍼스에 작은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 세계 53개 캠퍼스... 인재 양성 요람
국제경영학과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원어민교수가 진행한다.

'3+1 이등수업(국내에서 3년, 해외에서 1년)',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3+2 학사+석사 학위 프로그램' 등 한국과 해외를 넘나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을 돕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핵심가치로 삼고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나사렛대는 1995년 국내 최초로 인간재활학과 개선을 비롯해 재활공학, 언어치료, 수화통역, 심리재활, 특수체육,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 장애인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재활복지와 인권분야의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99년 재활복지대학원을 설치하고 2009년 국내 유일 학습 장애인 대상 정규 4년제 교육과정인 재활자립학과를 신설해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서 꽃을 피웠다.

◆ 보건계열 국가고시 100% 합격... 역대 최고 기록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4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개설 이후 매년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있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는 재활복지·보건 융복합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육학부는 2015 특수교사 임용고시에서 42명의 합격생을 배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3년 28명, 2014년 32명 등 매년 30여 명 인원의 합격자를 배출해 특수교사

전 세계 53개 캠퍼스 갖춘 네트워크
외국인 교원·유학생 유치 등 가시성과 국제감각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요람
보건·재활스포츠 분야 특성화 대학
간호사 등 국가고시 합격률 100%
장애인·재활스포츠 분야 선도 대학

양성의 산실임을 입증했다.
◆ 1:1 돌봄상담 '부모교수제(TLC)' 운영
나사렛대는 '부모교수제(TLC)'라는 독특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TLC(Tender Loving Care)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교수가 학생을 보살핌으로써 전인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사렛대 고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대학 특성화 재활스포츠분야 선두 군권
나사렛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선정돼 2018년까지 매년 3억씩, 총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은 국가지원 분야의 재활스포츠 인재양성 사업단(단장 조재현)으로 ▲재활운동



나사렛대학교는 전 세계 53개 캠퍼스 등 풍부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교원·유학생과 재학생들의 모습.

전문가 양성사업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양성사업 ▲장애 우수선수양성사업 ▲스포츠 취약계층 지도자 양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인력을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달장애 재활운동지도사, 심리운동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취약계층 태권도지도사 등 국가자격증과 재활·스포츠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재활스포츠 전문 인력을 양성, 국가적 인재풀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사렛대 스포츠단은 창단 이래 국제대회에서 49개, 국내대회에서 18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체육훈장 5명, 대한민국 인재상 2명을 배출했다.

◆ 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 통합교육 실시
나사렛대는 재활복지특성화분부와 장애인학부 고등교육지원센터, 재활연구소, 재활스포츠 연구센터, 보조공학센터,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장애인 학생들의 사회적 지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의 유형별·정도별 제원을 두지 않고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재학생 6000여 명 가운데 300명의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이며(2014년 10월 1일 기준) 이는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한 다양한 영역별, 수준별 장애인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활복지 특성화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며, 장애인 고등교육의 국제적 메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적용, 맞춤형 학습복지 지원, 자립형 첨단재활공학을 활용하는 등 전 방위적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나사렛대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행정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 환경에서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했으며, 장애인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윈 윈(Win-Win) 교육의 장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천안=김도운 기자 0205@ggibo.com

“안전도 조기교육 필요해요”

아산소방서, 119소년단 모집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는 오는 15일까지 한국119소년단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학생들을 모집한다.

한국 119소년단은 1963년 창단 이후 유치원(아린이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증진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꿈나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6월 학교별 일일교과와 함께 각종 소방안전체험과 함께 수련캠프, 한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연수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홍승길 방호예방과장은 “한국 119소년단을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하고 우수단원 및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활동사례를 전파해 안전문화 조기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산=이진학 기자 in119@ggibo.com



‘볼쇼이 아이스쇼’ 아산에 온다

30~31일 이순신빙상장서 무대

아산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지난해 신종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원작인 안드레프스키의 ‘눈의 여왕’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아산 이순신빙상장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통해 ‘눈의 여왕’을 비롯 ‘백설공주’, ‘로미오와 줄리엣’, ‘메리 포핀스’, ‘백조의 호수’ 등의 기존의 아이스쇼와 차원이 다른 감동과 재미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팀은 2012년 ISU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은메달 등을 수상한 ‘알레나 레오노바’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출신 남자 싱글의 ‘드미트리 드미트렌코’ 등 정상급 선수들의 수준높은 빙상공연과 함께 ISU 대회를 비롯해 유럽선수권 등 다양한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의 화려한 ‘걸라쇼’도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2016년 아산에서 진행되는 아산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가타 공연 관련 문의는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fac.or.kr) 또는 전화(1899-4231)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산=이진학 기자 in119@ggibo.com

세종시 감사위, 시교육청 첫 감사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가 처음으로 6일부터 오는 20일 간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성과감사에 들어간다.

성과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이 시행,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 시민 등의 제보를 받는다.

또한 설문은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설문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 감사위원회(오른쪽 상단) → 참여마당 → 시민감사참여, 교육청 민원실 비치 설문지 등을 통해 14일까지 실시된다.

세종=정정희 기자 in0011@ggibo.com

세종 급식 소고기 모두 한우로 편명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가 합동으로 30개 학교 납품 식육 유전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 기간 급식소가 있는 유치원, 초·중·고교 81개 학교 중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를 채취해 충남도가족육생연구원에 검사의를 실시한 결과다.

세종=정정희 기자 in0011@ggibo.com

세종시, 오늘부터 시영버스 시범운영

출근시간 2차례·낮시간 6차례 운행
요금 1200원... 하반기 중 2대 증편

세종시가 6일부터 시영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6일부터 신도시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1단계로 시(市) 소유 버스와 운전원을 활용해 약 2만 세대가 입주예정인 1생활권에 ‘세종시영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영버스는, 출근시간에는 승객이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5번 노선을, 낮시간에는 이마트동 북학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셔틀버스 방식으로 운행한다.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출근시간에는 오전 7시

45분, 8시 5분 두 차례에 걸쳐 가재마을 5단지에서 3생활권 한국개발연구원까지 운행하며, 낮시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이마트동 북학커뮤니티센터에서 가재마을 5단지까지 운행한다.

시는 당초 운임을 500원으로 정했으나, 공직선거버 등 유관해석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인 1200원으로 결정했다. 무료환승이 안 됐던 시스템을 개선해 카드결제와 함께, 시내버스와의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대의 차량을 추가 확보 예정으로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마을버스 또는 시영버스 등으로 통합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정정희 기자 in0011@ggibo.com

세종시 출입기자단, 문호 개방 ‘새출발’

본보 포함 충청권 14개 회원사 체제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조직체계를 새로이 정비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세종시기자단은 지난달 말까지 이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등을 마치고, 지역 특성과 신청사 이전 흐름에 부합하는 언론 활동 의지를 다지면서 협찬 출판을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많은 언론사가 난립한 가운데 뚜렷한 규정과 원칙 없이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문제가 도출돼 언론이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기자단은 한국기자협회(1964년·180여 곳 회원사)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언론사 현주소를 적극 공개하고 건전한 취재활동 평가를 받는 언론사에게도 문을 열었다.

기자단은 필수요건은 ▲대전·충남·북·세종 본사와 세종지역본부 운영 ▲지자체 통한 언론 등록 후 2년 경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위안 여부 ▲순수기획기사 주회 이상 작성 ▲정부제정청사 출입에 준하는 자격 서류 제출 등 모두 5가지 조항으로 규정했으며, ▲전국네트워크를 갖춘 협회 가입(국무조정실

기준) ▲ABC협회 공개 유가부수 4000부 이상 ▲랭킹닷컴 지역신문 랭킹 50위 이내 등 모두 3가지 핵심요건을 바탕으로 핵심요건 2가지 이상을 충족한 언론사도 가입을 허용하는 등 여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CBS, MBC, KBS, TJB 등 대전·충남·세종 기자회견 7개 회원사, 중부매일과 충청매일,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등 충북 기자회견 4개 회원사 및 뉴스와 동양일보와 금강일보가 회원사로 출발한다.

이밖에 충청일보와 세종의소리 등 일부 언론사는 향후 협의를 통해 기자단 가입을 노크할 예정이다.

신인 감사로는 TJB 김세배 차장이 만장일치로 당선됐고, 김준중 충청매일 차장과 이희택 중도일보 차장이 각각 부간사에 선임됐다.

세종=정정희 기자 in0011@ggibo.com



아산 모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아암을 앓고 있는 흥성 금당초등학교 최 모 군을 위해 성금모금을 펼친 가운데 학생회창단이 모금된 성금을 확인하고 있다.

아산 모산초, 소아암 앓는 또래 위해 성금 모금

흥성 금당초 투병 학생 병원비 부족 소식
학생들이 앞장서서 모금활동 전개 훈훈

아산 모산초등학교 교장 오준석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소아암을 앓고 있는 흥성 금당초 최 모 학생을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했다.

최 군은 2015년 1월 초 골육종(소아암) 판정을 받고 서울 원자력병에서 수술 후 현재 소아암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에 있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암) 중에서 가장 흔하며 10대 성장기부터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안 평생학습축제 오는 9월 개최

천안시가 제7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9월 11일과 12일 유관순체육관 일원에서 제7회 평생학습 축제'를 열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전 평생학습축제는 다양한 내용의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발표회를 통해 그간 배우고 익힌 내용을 공유, 시민 중심의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평생학습

문화진흥 도모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예정이다. 또한 쌍용도서관의 북페스티벌과 연계해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제7회 평생학습 축제 첫날인 오는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체험·전시관 ▲명사특강 및 각종 공연의 어울림마당 ▲평생학습 동아리의 뽐내기공연 및 잔여놀이 체험장이 포함된 놀이마당 ▲맛 있는 간식거리 먹거리마당 ▲햇볕남자와 함께하는 포토존 및 부모의 자유로운 체험을 위한 아이들의 미니 놀이터 등의 전시 이벤트가 운영된다.

천안=김도운 기자 0205@ggibo.com